



◊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의 본존불인 열반외불상. 길이 12m 높이 3m의 초대형 목불상으로, 국내 사찰로서는 처음 봉안된 석가모니불 열반상이다.

보덕성사 창종...한국불교 최초 교종 법맥이어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 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열반종

도청 등 지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6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宗祖, 백제완주로 이주 경복사 창건 전국 사찰70여곳·미디어포교 주력

열반종은 고구려 보덕성사(普德聖師)에 의해 창종됐다. 고구려에서는 623년, 백제에서는 650년에 창종됐다. 통일신라시대 5교 9산, 고려시대 12종파를 거쳐 조선 태종때 7종파로, 세종 때는 선교 양종으로 이어져 왔다. 1천6백여년 장구한 불교역사 속에서 한반도 최초로 창종한 열반종은 중흥과 쇠퇴를 거듭하며 종풍을 펴왔다.

열반종의 창종조인 보덕성사는 고구려 스님으로 자는 지법(智法).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추천으로 유일하게 성인으로 추서받았으며, 문하에 명덕 무상 적멸 의웅 지수 등 15명의 특출한 제자를 배출했다.

보덕성사는 고구려 보장왕이 중국에서 들어온 도교를 숭상하자 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백제의 완산(지금의 완주) 고대산으로 자리를 옮겨 도제양성과 불법 흥조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곳이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경복사(景福寺)·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와 의상(義相)이 보덕성사로부터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웠으며,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이인로, 이규보 등이 이 절에 들러 지은 시가 1481년(조선 성종 12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돼 있다. 이후 경복사는 근세 일제 침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사됐다. 보덕성사는 금강산 보덕암, 고구려 반룡사, 영탑사, 공주 신원사, 수왕사, 유마사, 금당사 등 200여 사찰을 창건하기도 했다.

현재 열반종은 중흥조 해암 해곡(海巖 海谷) 총무원장이 1970년 교종으로서 열반종을 다시 세우고 용인 연화산에 와우정사를 건립, 총본산으로 삼았다. 와우정사에는 송철 원로원장, 해곡 총무원장을 비롯해 덕원 중앙총회회장, 해곡 교육원장, 진오 포

교원장 등이 주석하고 있다.

열반종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를 갖추고 종무와 교육, 포교를 전담하고 있다.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원 산하에는 신문·방송 포교, 멀티미디어 포교, 출판 포교, 국제 포교부 등을 두어 불교계 종단 최초로 언론·방송인을 중심으로 한 포교를 실시하고 있다.

1백40여 출가수행자들이 와우정사를 비롯해 전국 70여 사찰에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창건된 전통사찰도 상당수 소속돼 있다. 종단에 등록된 신도는 1백여 만명에 이른다.

열반종은 부처님 오신날,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 등 불교 4대 명절과 창종일에 특별법회를 열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사시 동참기도법회 등 정기법회를 열어 불법흥포와 종단 내실을 다지고 있다. 또 종립학교로 한국 불교 삼장대학, 한국불교예술대학, 한국전통예술대학, 한국불교 언론대학원 등을 운영, 언론 중심의 포교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세계불교도우의회, 한일 불교교류협의회, 세계불교문화 교류협회, 세계불교도총연맹 등 국제 불교교류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유럽권에 영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흥보지와 테잎을 제작, 발송해 한국 전통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해외에 알리는 등 불교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열반종은 앞으로 청소년 중흥사상 교육, 군경 포교, 언론인 포교, 국제 불교문화교류 등과 불교도서관 및 박물관 건립, 폐사 지인 열반종 사찰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열반종 종조 보덕성사진영



◊용인시 연화산 와우정사에 위치한 총무원건물.



◊보덕성사가 창건한 금강산 보덕암.

대한불교열반종 종지종풍

- 교조 : 석가모니불
- 종조 : 고구려 보덕성사
- 중흥조 : 해암해곡 삼장법사
- 창종 : 고구려 623, 백제 650년
- 중흥 : 1970년 9월 1일
- 종지 :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어서 여래상주 무유변이(如來常住 無有變異)라고 하는 석가 세존의 열반적정(涅槃寂靜)한 근본교리를 봉체(奉體)하고, 법등명(法證明), 자등명(自證明)으로 정진하여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증득으로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 소의경전 : 대반열반경
- 부경 :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무량수경, 순만경, 인왕홍국 반야바라밀다심경, 묘법연화경, 금광명회승양경,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열불, 지승 등은 제하지 아니함.

대한불교열반종 조직

- | | |
|----------------|------------|
| 종정 : 海巖海谷 三藏法師 | 원로원장 : 朴松月 |
| 종회의장 : 李德岩 | 총무원장 : 金海谷 |
| 포교원장 : 釋眞悟 | 교육원장 : 金大眼 |
| 기획실장 : 方應界 | 총무부장 : 宋奇祥 |
| 재무부장 : 徐海德 | 사회부장 : 吉 住 |
| 홍보부장 : 金宗旭 | 포교부장 : 金鐵元 |
| 규정부장 : 韓善安 | 국제부장 : 金德奉 |
| 문화부장 : 金忠義 | |

대한불교열반종 총무원

KOREAN BUDDHIST NIRVANA ORDER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223번지
전화 : (031)339-0101~3
중정실 : (031)339-0048

(재)대한불교열반종 총본산 연화산 와우정사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선43번지
전화 : (031)332-2478, 339-0101~3
팩스 : (031)339-0104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 핵심사상 총본산 와우정사, 통일·평화 상징도량

해곡 열반종 총무원장



“니르바나(열반)는 깨달음의 완성된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니르바나의 진리가 열반종이라는 명명에 담겨 있는 거지요.”

대한불교열반종 해곡 총무원장(사진)은 열반종을 다시 세운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1970년 경기도 용인에 자리를 잡고 종단 중흥을 발원하면서 <대반열반경>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큰 가르침을 심어나가고자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인도 카스트제도를 부정하고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열반종의 핵심사상이지요.”

해곡 총무원장은 지금처럼 만인이 평등한 사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열반종의 사상이 이 시대에 맞는 철학을 강조한다. 해곡 총무원장은 포교를 위해 스스로 방송을 선택했다. 소리와 영상 등 미디어매체를 통한 포교가 이 시대에 맞는 포교라는 강한 믿음에서였다. 총무원 산하에 신문·방송 포교, 멀티미디어 포교, 출판 포교, 국제 포교부 등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믿음으로 해곡 총무원장은 불교 방송 창립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70년대 부

처님 오신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활동에 동참, 정부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보덕화상이 창건한 경복사는 그 제자들과 원효 의상 대현 등 수많은 고승이 공부한 도량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복사가 복원돼 열반종의 전통 가람으로 그 면모를 되찾기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해곡 총무원장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관리국, 전라북도 등에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노력은 지난해 전라북도도와 완주군이 ‘경복사지 복원을 위한 학술회’를 개최하고 기초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를 건립하면서 해곡 총무원장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의 서원을 담았다. 그래서 와우정사에 가만 세계만물전과 통일의 탑, 통일의 종 등 상징물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의 국제 불교교류를 점차 확대해 중심도량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서원까지 세웠다.

와우정사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열린 도량이다. 그래서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볼거리에 참배객이 줄을 이어도 주차료, 입장료조차 일체 받지 않는다. 이는 호국불교성지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해곡 총무원장의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열반외불상’은 길이 12m, 높이 3m의 초대형 목불상으로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 조성된 유일한 외불상이다.

이 외에도 높이 10m의 불두(佛頭)와 장육존상(丈六尊像五尊佛), 미륵반가사유상, 88 올림픽 때 타종했던 통일의 종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각지,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가져온 돌을 모아 쌓아가는 ‘통일의 탑’과 세계 최대의 유일한 석가모니 불 고행상(苦行像)도 와우정사의 자랑거리다.

1300년 종맥 이은 대표 호국도량 남북통일 발원...통일의 종·탑 세워

총본산 와우정사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달리면 용인평. 정확히 48km(차편으로 50분 소요) 지점에 대한불교열반종 총본산 와우정사가 위치해 있다. 이 곳은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 또한 아름다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다. 와우정사가 자리잡고 있는 용인의 연화산(해발 304m) 주변에는 에버랜드와 용인리조트, 한국민속촌이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도 꼽히기도 한다.

와우정사는 대표적인 호국도량으로 꼽힌다. 1천3백년의 열반종 역사를 통해 면면이 이어져 온 불교의 호국정신과 오늘날 분단상황에서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간절함으로 창건됐기 때문이다. 와우정사에 조성된 ‘통일의 탑’과 ‘통일의 종’ 등은 이같은 염원을 담고 있다.

와우정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흔히 만날 수 있다. 한국사찰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다른 사찰에서

는 보기드문 열반외불상이 있는 와우정사만의 특징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입소문으로 전해진 와우정사의 볼거리 만큼이나 불교문화 체험마당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드컵 기간에는 외신 기자들과 청소년들이 전통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한국불교를 몸으로 느끼고 돌아갔다. 와우정사 경내에 있는 국제불교회관에는 열반종 총무원과 세계불교문화교류협회 본부, 세계불교도총연맹 본부가 있어 세계 각국의 고승들이 수행과 회의를 위해 찾곤 한다.

와우정사는 1970년에 창건된 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풍부



◊1997년 아시아태평양 방송인 서울 총회에 참가한 40개국대표단이 와우정사를 방문, 한국불교를 체험했다.